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원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바라보시며 건국의 초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친 교직원, 학생들은 몸소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으로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 계승자들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



쳐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며 온 나라의 축복속에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앞으로도 만경대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핵심적역할을 다해나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세운 혁명사적관과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교육환경, 과학교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여러 강의실들, 종합체육관, 수영관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교육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주체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들, 핵심 부대를 키우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원아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련일 대인기, 관람열기 더욱 고조

첫 시작부터 평안북도인민들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의 관람열기가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천하제일 사회주의락원을 꾸려가고있는 평안북도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배경에 새겨진 공연무대로 예술인들이 나오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송가인 애국가가 장중하게 울리자 장내는 환희와 격정으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무대에는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위대한 어머니의 참모습을 격조높이 구가한 노래들과 여성독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그이 없인 못살아》, 여성중창 《조국과 나》,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녕변의 비단치녀》, 《황금산타령》, 《오늘의 창성》, 경음악 《단숨에》,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등의 종목들이 울랐다.

평북땅의 천지개벽의 역사를 전하는 설화시 《평북도여 빛내가라 사회주의락원을》이 장내에 울려 퍼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수령님들의 체취가 스며여있는 이 땅을 세상에 으뜸가는 무릉도원으로 가꾸어갈 애국충정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웠다.

종목들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해하며 저마다 무대로 올라가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공연은 종곡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공연은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철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사회주의협동벌의 풍년이삭들을 안아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어려와 눈굽이 젖어든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삼복의 무더위에 그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룡천땅의 포진 길을 걸으시며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서원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기사장은 설화시와 함께 무대에 펼쳐지는 추억깊은 화면들이 눈굽을 뜨겁

게 적셔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평북땅에는 간석지건설력사를 개척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자욱이 력력히 어려여있다.

오늘 공연을 통하여 받은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새로운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안고 조국의 지도를 넓혀가는 성스러운 격전에서 영웅

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본매와 기상을 더 높이 떨치겠다.

허정숙 창성군문화회관 관장은 창성사람들의 기쁨넘친 생활을 반영한 《황금산타령》, 《오늘의 창성》과 같은 노래들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창성군 예술소조원들모두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불렀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펴 력하였다.

황금산, 보물산의 주인들인 우리 창성사람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 발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본사기자



과학기술로 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령도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곳 농장에서 육성해낸 《평옥9》호, 《발벼24》호, 수수강병이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과 새로 건설한 연구소,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년이 든 농장벌에 서있노라니 과학농사 좋다, 종자혁명 좋다는 구절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신문과 TV화면으로 펼쳐진 이곳 농장의 호젓한 농사작황, 가을이 지속된 올해의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벼알은 벼알대로 총알처럼 여물고 강병이포전에는 팔뚝같은 이삭들이 주렁지고 생산성과 영양가가 놀랄 정도로 높아 남새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열게 해준 새로운 남새작물 《단백초》의 푸르싱싱한 모습...

보면 볼수록 가슴호뭉쳐지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가까운 시일안에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수 있다는 낙관과 확신을 심어주는 이곳 농장의 과학농사대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발전과 인재육성사업에 언제나 국가적인 큰 힘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늘어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또한 국가의 교육중시정책에 의해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제도가 새로 확립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 체

계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국가가 해마다 웅근 하나의 새거리를 일떠세워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에게 통채로 안겨주는 사랑의 조치들도 련속 취해지고있다.

과학기술과 인재를 틀어쥐고 힘을 집중할 결과 첨단과학기술을 개척하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있으며 국방과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공화국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남들이 상상 못하는 놀라운 속도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사변적인 성과들을 다계단적으로 이루어내고 동방의 당당한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된것도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

라의 농업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헤아려보시고 종자혁명, 두벌농사 등 과학농사업종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원수님 다녀가신 1116호농장에서 지난 시기 갖가지 우량품종의 농작물들을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에도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고 수확량이 높은 농작물들을 연구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한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곳 농장에서는 올해 《발벼24》호를 파종한 후 60여일간 심한 가을이 들었지만 풍작을 거두었다. 다수확품종인 《평옥9》호를 심은 강병이밭에도 팔뚝같은 이삭들이 달리었다. 또한 전작으로 밀을 심고 후작으로 이 강병이품종을 심어 정보당수확고를 13~15t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두벌농사전망도 열려졌다.

하여 물이 부족한 논과 밭들로 이루어진 이곳 농장에서

는 가을이 지속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우량품종의 종자를 심어 정보당수확고를 이전에 비해 4배이상 끌어올리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기에 이곳 농장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는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며 우리가 의거해야 할것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명석한 두뇌이라고 하시면서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리일으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1116호농장의 가슴호뭉친 농사작황은 공화국에서 과학의 힘으로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빨리 추켜세울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져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일심단결, 최강의 핵무력이 있고 자립경제의 힘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의 튼튼한 토대도 닦아져있어 그 어떤 제재와 위협에도 공화국은 끄떡없고 정의의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되고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금이삭 설레이는 전야를 기쁨속에 보고 또 보시면서 신심이 넘친다고,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벼바다, 강병이바다의 파도소리가 사회주의승리의 개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하시였다.

사회주의승리의 개가, 인민들의 웃음소리!

머지않아 경제가 더욱 흥하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까지 해결되게 되면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온 나라에 차넘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의 발벼포전과 연구소의 일부

조선을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시킬것이고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허세나 추종세력들의 압력에 움츠러들거나 물러설 나라가 아니다. 절대병기인 수소탄까지 가졌고 인민은 불굴의 강자이다. 원산과 함흥, 신의주에 련이어 펼쳐진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공연만 보아도 고난과 역경을 맞받아 뚝고헤치면서 최후승리에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미 미력한 필설로나마 《태양가까이에서》, 《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노래》, 《저녁노을은 붉다》와 같은 도서들을 내놓은바있는 나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력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실 때 높이 펼쳐질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되새기며 펜을 들었다.

지난 8월 2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태평양 상수역에 정한 목표물을 향해 쏜 탄도로켓트가 일본상공 너머로 지났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나는 흥벽이 후끈하도록 달아올랐다. 107년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피의 8월 29일에 잔악한 일본본나라족속들이 기절초풍하도록 조선민족의 쌍이 고쌍인 원한과 분노, 징벌의지를 담은 총장거리전략탄도로켓트 《화성-12》형이 일본령도를 날아넘은것이다.

사람들모두가 통쾌해했다.

력사는 고칠수도, 지어낼수도 없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난날 일제가 강요한 불행과 고통, 치욕이 지금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우리 강토를 짓밟은 일제는 조선인민의 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했다.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말과 글, 성과 이름도 빼앗고 지어 조선의 표준시간마저 없애버리었다. 옛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의 송악산을 비롯한

수기

최후승리의 축포를 그리며

여 백두산과 한지맥으로 이어진 이 나라 명산들에 불에 달군 쇠말뚝을 박았는가 하면 설 설 꿩을 류황을 부여넣고 산허리를 끊어버리는것과 같은 비렬하고 유치한짓까지 다했다.

그러나 그렇게도 무참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란도질한 일제는 패망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께서 이끄시여 지리멸렬되어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셨다. 3천만 조선민족이 터치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환호소리가 8월의 폭양보다 더 뜨겁게 내 고향 단천이며 온 강토를 달구었다. 그때 13살잡이 철부지였던 내가 어른들속에 끼어 만세를 부르던 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우리 학교 운동장에 패전한 일본군놈들을 세워놓고 무장을 해제하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다 죽었던 조선민족의 운명은 구원되고 자주와 인간존엄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미국의 운명 역시 다를바없다. 왜놈들을 대신하여 조선반도 남쪽에 기여들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미제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정복하려고 추종국가들의 고용병들까지 끌어들이어 조선전쟁에 내몰고 원자탄

사용기도까지 드러냈었다. 그러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지략과 평군술에 의해 미국을 피수로 한 제국주의련합무력은 대참패를 면치 못했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날려버리고 악의 제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은것이 조선의 정승신화다. 나는 10대의 시절에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해 전선에서 전선으로 포차를 달리며 미군에게 섬멸의 포화력을 들켜우던 그때를 승리자의 자부를 안고 추억하군 한다. 우리 전승세대들이 체험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청초한 국가와 인민도 핵을 가진 대적과 맞서 이길수 있게 한 승리의 기치이시였다.

나는 수십년세월 남조선에서 옥중생활을 할 때에도 위대한 령장이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조국통일의 그날도 오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고행리들과 맞받아 싸웠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다, 이런 신념과 배짱으로 모진 악형과 위협, 회유와 유혹, 굶주림과 고독에도 굴하지 않았다. 전향문에 지장을 찍는데는 순간이지만 나는 그 순간을 34년과 바꾸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숭고한 의리에 의해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꿈같은 행복을 받아안은

의 대원수 김정일장군》이라는 표제하에 대국들도 미국의 강권에 굴종하는 때에 김정일령도자께서 미국과 맞서 이룩하신 성과는 력사에 전례없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어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반드시 미제와 최후결산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게 될것이다.》

지난 8월 조국을 방문한 재중동포들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과 만났을 때 한 말이다. 미국을 꺾지 못하게 다스리시는 천출명장을 모시여 공화국의 최후승리는 멀지 않았다는 신심과 낙관의 토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무한한 애국헌신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미국본토도 단숨에 불바다에 잠글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도 성공하고 미국이 불안과 공포로 전율하고있는것은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허필에 죽을 말이 있다고 했다.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완전파괴》하겠다고 호언한 미국집권자의 망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늑다리강매의

단말마적비명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용납 못할 호전적망발은 우리 공화국의 천만군민의 치솟는 격노와 중요를 불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명을 높이 받들고 떨적의 기세 높이 반미대결전에 총력기해나섰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 각계층 사람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고있을 때 나도 다시 군복을 입고 포병으로 복대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이제 반미총결사전이 벌어지면 포화속을 누비던 청춘시절의 그때처럼 용감히 싸워 포병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고 포병의 축포사격으로 조국통일의 승리를 경축하려고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반드시 받드는 군위병의 한사람이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전승의 열병식광장에 모시고 7.27을 경축한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제2의 7.27을 경축하는 열병대오에 서고싶은것이 내 심경이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아무리 포악무도하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최후승리는 멀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굳은 확신이다.

김동기 (비전향장기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얼마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조선로동당의 당면활동과 경제발전방향,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면서 당의 병진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핵무력건설의 역사적대업을 빛나게 완수할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였다.

이 로선은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애국의 로선이다.

병진로선에는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이 애국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전진하여왔기에 지난 수년간 공화국에서는 경제가 더욱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기 위한 건설의 대전망기가 펼쳐졌으며 아침과 저녁이 다른 전변과 기적의 날과 날들이 흘러왔다.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도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국방과학부에서 강위력한 주체무기들이 련속 개발완성되고 국가핵무력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켓을 짧은 기간에 개발하여 시험성공시키고 그에 장착할수 있는 수소탄의 폭음도 울러였다.

이제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은 눈앞의 일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탁월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늘 전세계가 공인하고 적대세력들도 비명을 지르는 공화국의 강력한 자위의 핵억제력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피어린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민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억제력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을 들뜨우려는 폭제의 핵구름을 몰아내고 인민들이 맑고푸른 하늘아래에서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갈수 있게 하는 정의의 강력한 보검이다.

현실은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하고있다.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적기도와 침략본성은

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감히 주권국가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라고 뇌카리고 신성한 유엔총회무대에서 《북완전과피》 망발을 마구 쉼친 미국의 행동에서 전세계는 전쟁과 파괴, 살륙을 도락으로 여기는 양기식인종들의 잔인무도함과 광대적기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았다.

하기에 지금 온 조선이 분노하고 악의 제국, 늑대리쌍패를 불로 다스리려는 징벌의 의지가 이 땅, 이 하늘가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공화국의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공화국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조선을 위협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하기에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수 있는 군사적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고있다.

정의의 강력한 핵보검을 틀어쥐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최후승리의 아침은 이 땅위에 머지않아 밝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배는 서해의 물결을 헤가르며 기세풍계 달리고 있었다.

배머리에 서서 바다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멀리 수평선에 눈길을 주고있는 한 처녀의 모습이 유묘하게 눈에 띈다.

2시간 남짓이 배길로 달려서야 수평선 저 멀리로 2개의 거대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매도이다. 특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섬.

(저 섬에서는 과연 어떤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처녀가 남포시 남산인민학교(당시)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자원하여 자매도분교의 교원으로 배치된 20살이 갓 지난 전복순녀성이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수십여년전인 1978년 8월이었다.

비록 몇세대가 살고있는 한적한 섬일지라도 전복순녀성에게 있어서는 보람차고 행복한 섬생활이었다.

학년이 서로 다른 몇명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는 그들과 한데 어울려 탁구도 치고 바다물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였다. 명랑한 처녀교원의 가슴속에 어떤 꿈과 포부가 자리잡고있는지 그때까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전복순녀성에게는 남모르는 소중한 꿈이 있었다. —조국의 송고한 후대 사랑을 외진 섬마을에도 전해주는 한줄기 빛이 되리라.

그것은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분교를 세워주고 교원을 보내주는 고마운 조국, 외진 산골마을의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통학열차가 달리게 해주고 직승기까지 날게 해주는 이 좋은 제도를 위해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이 한 처녀의 심장의 맹세였다.

그 맹세를 지키는 일은

결코 험치 않았다. 섬에는 선천적인 기능부전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어린이가 있었다. 그의 부모들도 손뼉을 놓고 나앉은 상태였다.

전복순녀성은 그 예의 부모들을 찾아가 분교의 학생으로 받아들일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 나날에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그 학생이 제손으로 트랙트박 《우리나라》라고 쓰고 류창하게 읽었을 때 그의 눈가에서 는 맑고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날과 달이 흘렀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섬마을의 녀교원

풍랑세차도 변함없이 울리는 섬마을의 수업종소리와 더불어 학생들은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라났다. 등대초소주변에 나무도 심고 등대의 유리도 닦으면서 아이들은 조국의 고마움을 새겨안고 희망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쳤다.

한해, 두해 해가 바뀔수록 섬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다. 처녀교원이 학생들에게 정이 폭 들어 흔기를 놓치는줄도 모르고있는것이였다.

누구보다도 부모들의 독촉이 불갈았다. 이제 섬생활을 그만두고 본교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편지가 한달이 멀다하게 섬으로 날아왔다. 그러나 전복순녀성은 그들을 기쁘게 해줄 회답편지를 보낼수가 없었다.

외진 섬분교에서 후대교육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전복순녀성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많은 독자들속에서 축하의 편지들이 날아왔다.

어느날 편지대신 림름 림름한 한 처녀의 심장의 맹세였다. 섬에 닿을 내릴 결심이니 일생을 같이 하자

그 진정이 처녀교원의 심장을 움직이였다.

전복순녀성은 만사람의 축복속에 그 청년과 한가정을 이루었다.

생활은 즐기차게 앞으로 전진하였다. 전복순녀성도 어느덧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는 교육자로서,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바빠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녀교원을 섬사람들이 더욱 극진히 위해 주었다. 등대를 지키는 남편도 안해의 일에 극성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물에 나갔던 전복순녀성이 한 어린 처녀애의 손목을 잡고 배에서 내리였다.

섬마을의 녀교원

그가 부모없는 처녀애를 데려다 키우기로 결심했다는것을 알게 된 섬의 늙은이는 말없이 눈굽을 흘리었다.

《선생님은 할 일도 많을텐데 그 애를 내게 맡기는데 어떻습니까? ...》 전복순녀성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어찌 고생이겠습니까. 전 기쁩니다. 우리 분교에 또 한 학생이 늘어나서말입니다.》

10년, 20년, 30년, 섬생활은 이렇게 거침없이 지나갔다. 한 녀성의 청춘시절과 한생이 외진 섬분교의 교단에서 흘러갔다.

그가 천고개를 넘어서자 형제들의 《공세》는 또다시 시작되였다. 그동안 섬에서 해놓은 일도 많으니 이제는 물에 나와 함께 살자는것이였다. 편지들이 연방 날아들었다.

전복순녀성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아직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공훈교원으로 내세워준 조국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어. 한생을 섬

의 아이들을 위해 바치겠어.》

전복순녀성은 끝내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등대장이 된 남편의 방조속에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그가 소학교를 졸업시킨 제자들은 20여명이다. 그들 가운데 3명은 부모들의 뒤를 이어 현재 섬에서 등대원으로 생활하고있다.

특지와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서 흘러간 성실한 한 교육자의 삶을 값높이 빛내준것은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품이다. 은혜로운 태양은 외진 섬도 그늘 한점없이 따스이 비쳐주었다.

전복순녀성은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고 2012년에는 분교의 맹성혁학생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되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 참가하고 음악회도 관람하는 소식이 TV를 통해 섬마을에 전해졌다.

지난 9월 전복순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받는데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가는 한줄기 빛이 되리라.)

이런 결심으로 그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불탔다. 오늘도 섬마을의 아이들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전복순녀성,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공화국에는 외진 섬에서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랑랑히 울려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체육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보여준 전시회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곧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되고있는 오늘 체육분야에서도 과학기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과학기술전에서 진행된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공화국이 체육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얼마나 큰 힘을 넣고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체육부문과 교육, 과학기술부문의 단위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체육프로그램, 측정기구, 체육의약품과 영양제, 체육기자재, 도서 및 논문 등 1 20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끈것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체육연구원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출품한 체육프로그램들이였다. 이 체육프로그램들은 체육과학기술을 정보화, 과학화하

는데서 가치가 큰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조선체육대학에서 출품한 《운동신경반응측정에 의한 운동지능평가 지원체계》는 국산화된 측정설비로 사람들의 운동지능과 운동능력을 신속정확히 평가하고 종목별특성에 따르는 선수후비들을 과학적으로 선발할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가지 질 좋은 체육기자재들도 많이 출품되였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생산한 6원축구공과 축구문지기장갑은 조선사람의 기호와 체질에 맞게 다양하면서도 그 제작기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여러 체육단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선교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내놓은 탁구공반아치기훈련기재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상자가 없이 혼자 반아치기훈련을 진행할수 있으며 자기

가 의도하는 임의의 위치와 자세에서 공치기 훈련을 할수 있는 이 기재에 대해 여러 체육단의 탁구감독들은 청소년들의 조기교육에서 아주 실리가 있는 기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밖에도 내고향녀 자축구선수단에서 출품한 축구공투사기와 함흥시내의 한 공장에서 파다야고무를 리용하여 만든 야외경기장바닥용고무깔판을 비롯한 체육기자재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는 체육선수들의 육체적능력향상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체육의약품과 피로회복 및 영양식품들도 전시되였다.

이번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체육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철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의 헛나발질로 여론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은 지구행성을 통째로 뒤흔들며 자주와 정의의 핵이 침략과 폭제의 핵을 짓부시는 미중유의 세기적결전이 벌어지고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반미최후결전을 당당히 선언한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필승의 기상은 강권과 전횡, 불의와 압박이 판을 치는 세계정치에 거대한 충격을 주며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있다.

지금 미국과 그에 추종해온 어중이떠중이들이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초강도제재압박》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이 운명적대결에서 확실시되는 저들의 패배와 비참한 몰락에 대한 공포와 절망에서 조급이나마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 사로잡혀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질러대는 시라소니들이 있다.

그것들중의 하나가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을 내두고 마치 그것이 시시각각 더욱 첨예화되는 현 위기 국면을 해소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듯이 떠들어대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이다.

그들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저들이 열심히 가담하고있는 대조선 《초강도제재압박》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해결책》이고 《북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제재압박은 대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나중에는 《북이 진지한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있다.》는 헛소리까지 뉘적대고있다.

물론 좋은것은 상전지간이라면 그대로 되받아외워대야 하고 백악관주인의 호령이라면 미친 지랄병에도 박수를 쳐야 하는 식민지노복의 가공한 처지를 모르는바가 아니다.

하지만 잘못 던진 말 한마디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당기고 수천수만명의 목숨이 왔다갔다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각에 트럼프와 같은 정신나간자처럼 함부로 혀바닥을 놀려대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그 무슨 굼언이라도 되는듯이 찍하면 입에 올리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말자체의 의미만 놓고보아도 모순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

는 궤변중의 궤변이다. 대화가 서로 마주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정된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하기 위한것이라면 제재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나 힘으로 자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도적행태이다.

대화의 기초가 존중이고 신뢰라면 제재와 압박의 기초는 적대이고 대결이다.

이렇듯 제재압박과 대화라는 상반되는 두 개념을 한바리에 실어놓고 《병행》을 운운하는 그자체가 소대가리에 말궁둥이를 갖다붙이는 격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파당이 《제재와 압박은 대화협상과 모순되지 않는다.》느니, 《제재와 압박은 북을 대화마당에 끌어내기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강변해대고있으니 이야말로 무지와 무식의 표현인자 아니면 알면서도 우겨대는 뻔뻔스러운 언어유희인가 하는것이다.

전쟁이나 다툼없는 최대의 적대행위인 제재압박의 종착점은 명백히 두가지이다.

제재에 더는 견딜수 없어 손들고 나앉는가 아니면 그것을 물리적힘으로 짓부셔 나가아가는가 하는것이다.

제재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손들고 나앉는것은 결보기에 《대화》의 보자기를 쓸수 있지만 실지로는 항복이고 굴종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제재압박》을 통한 《대화》란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굴복시켜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참으로 심각한 착오를 범하고있다.

굴복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것이 결코 약자가 강자에게 요청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하다면 객관적으로 보건대 오늘의 현 국면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핵무력완성대업의 종착점에 거의 이르러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힘을 갖춘 우리인자 아니면 미국이 없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는 바람앞의 등잔불신세인 괴뢰들인가.

미국의 손탁을 떠나면 아무것도 볼것 없는 바지저고리나 같은 신세에 그 무슨 《제재압박》을 통한 우리의 항복을 고대하는것은 땅속의 지렁이

가 꿈결에 승천하기를 바라는것만큼이나 가스로운것이 아닐수 없다.

언제 가도 이루어질수 없고 오히려 사태해결에 장애만 조성할뿐인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에는 미국과 다른 소리를 벌레야 벌수도 없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제 마음대로 나설수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지가 그대로 비껴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에는 새로운것이란 전혀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가 내놓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그대로 본딴 미국산 모조품일뿐이다.

이미 실패한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의 연장이고 변종이라고 할수 있는 트럼프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는 날로 강대해지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걸맞지 않아 허겁지겁 고안해낸 궁여지책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단기간내에 류레없는 고강도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협상의 미명하에 온갖 회유와 기만, 흥정과 설득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려는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력대 미행정부것들이 내들었던 《강은전략》, 《재적과 당근》과 조급도 다름바 없고 양기식오만과 광면성의 극치만을 보여주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에 대해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그것이 옳고그른것인지 초보적인 판별도 하지 못하면서 상진이 고안해낸것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본따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겨레와 민족앞에 어떤 후과를 가져오든말든 아랑곳없이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광고해대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행태야말로 차마 눈뜨고 보아주지 어렵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오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케케묵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있는 《대화있는 대결》론의 재판이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에 합의하였지만 한순간에 뒤집어엎고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며 극악한 대결망동에 미쳐달린 《유신》독재자의 만고죄악은 오늘도 똑똑히 기록되어있다.

친미보수로 악명높았던 리명박, 박근혜역도패당 역시 《그랜드 바진》이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것을 《대북정책》이라고 내놓고 《초강도제재》와 《대화》를 《북핵포기》의 수단으로 내들었던것이 주지

의 사실이다.

그런데 명색상으로는 6.15와 10.4 선언정신의 계승과 그 리행을 떠들어온 남조선의 현 당국이 민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뉘적대는 트럼프와 같은 정신병자의 비위나 맞추고 보수역적패당과 조급도 다름바 없는 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핵보유는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고 기묘를 토하면서 서 내놓고 미국의 북핵핵전쟁도발책동에 가담해나서고있다.

그 무슨 《북핵미사일위협》을 앞장서 제창하며 《싸드》배치를 강행하였는가 하면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마구 끌어들이다 못해 《상시배치》까지 간청하며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도대체 트럼프가 우리 민족을 《괴멸》시키고 우리 강토를 《완전 파괴》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폭언을 제친데 대해 분개하기는 커녕 《강력하게 대응해주어 감사하다.》고 아부하고 민족이 입게 될 피해와 재앙은 외면한채 외세와 함께 전쟁도박판에 뛰어들고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모자는 바꾸어써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의식과 대결관념, 고질적인 외세의존병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적대감과 대결광증이 더해지고 외세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는것이 괴뢰들의 본능이다.

결국 북남관계가 나날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조선반도정세가 극단적지경에 처한것은 미국과 한짜이 되어 우리의 손에서 핵보검을 빼앗아보겠다고 허황하게 망상하면서 대화와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추악한 반역적망동의 산물이다.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은 저들의 대결적정체와 친미굴종태도를 가리우고 북침전쟁으로 치닫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기만용이며 늑거리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외세추종에 제정신을 잃고 동족대결에 사교가 경직된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제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현 사태를 제대로 투시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오늘 벌어지고있는 조미대결은 핵과 핵, 피와 피로써 서로의 존망을 판가름하는 최후의 결전이다.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있는 핵전쟁위협을 영원히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수수천년 바라던 강국건설의 민족사적숙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누구든, 어느 세대이든 반드시 한번은 이 고비를 넘어야 했기에 상상할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보유의 마지막판문을 통과한 우리 공화국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을수밖에 없는 팽혹한 오늘에서 우리의 핵무력야말로 민족최고의 리익이고 최대의 안전담보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역척의 기둥으로 되고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제재압박이 가해져도, 지금보다 천백배 어렵고 시련이 가중되어도 혁명적 대응전략으로 맞서나갈 모든 각오와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강탈하고 이 땅을 황폐화시키려는 날강도무리들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는 폭발전야에 있으며 일단 불탄 불면 상상할수없이 무서운 힘으로 타오르게 될것이다.

이 준엄한 시각에 말도 되지 않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따위를 들고나와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에게 그 무슨 추파도 보내면서 살길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

제재압박의 종착점은 괴뢰당국자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대화》가 아니라 오직 판가리결전이며 말로써가 아니라 피로써 모든것을 계산해야 할 최후의 결판장으로 될뿐이라는것을 남조선당국자들은 똑똑히 새겨두어야 한다.

미국이 두려워 제손으로 만들어낸 민족공동의 합의까지 함부로 짓밟으면서 외세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족을 해치는데 가담해나선다면 갈길은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어리석고 반역적인 대미추종으로 죽음의 함정에 굴러떨어지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미국에 굴러다니며 황당한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따위의 나발이나 불어떨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조 남 수

최근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진지관료들과 언론론,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일반주민들까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고있는 남조선집권자가 자기

가 내든 《대북정책》이 언제인가

는 《효력을 발생》할것이라고 력설하고있지만 《그 밤의 끝은 언제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리명박, 박근혜가 떠들며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통일은 대박이다.》와 같이 허황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하고있다.

특히 진보세력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대통령》이 선

거기간 《싸드》배치반대를 표방하고서도 《북핵위협》을 구실로 《싸드》추가배치를 강행하고 미전략자산의 《한》반도순환배치확대를 다그치고있다.》, 《《트럼프의 대북군사적 선택이라는 전쟁방아간에 물은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아

직까지도 도저히 이룰수 없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대북정책》을 계속 고집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초불민심과 온 겨레의 요구

없게 하겠다.》는 개꿈을 꾸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족을 적으로 대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다.

대미추종과 북남관계개선, 제재압박과 대화는 절대로 랑립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오늘 그 누구도 거들

떠보지 않는 외토리신세가 된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황당한 《대북정책》을 추주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보수패당에게 숨통을 열어주게 만든것이야말로 초불투쟁의 성과를 말아먹은 용납 못할 반역죄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며 초불민심이 등을 돌려대면 남조선당국의 운명도 오래 갈수 없다. 지금처럼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푼수없이 높아대다가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끔찍한 대참화를 불러올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사대매국적인 대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길, 자주통일의 길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것을 한사코 외면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 달리는것으로써 북남관계차단의 빗장을 더 깊숙이 가로지르고있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아직도 《북을 제재압박하여 대화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겠다.》는 개꿈을 꾸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동족을 적으로 대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다.

대미추종과 북남관계개선, 제재압박과 대화는 절대로 랑립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오늘 그 누구도 거들

떠보지 않는 외토리신세가 된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황당한 《대북정책》을 추주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보수패당에게 숨통을 열어주게 만든것이야말로 초불투쟁의 성과를 말아먹은 용납 못할 반역죄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며 초불민심이 등을 돌려대면 남조선당국의 운명도 오래 갈수 없다. 지금처럼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푼수없이 높아대다가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끔찍한 대참화를 불러올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사대매국적인 대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길, 자주통일의 길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김영식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밝아진다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를 극구 고취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추석휴식기간 국방부 장관 송영무를 비롯한 군부우두머리들은 최전방부대들을 싸다니면서 《만반의 대비태세유지》와 《강력한 응징》을 떠들며 대결망동을 부러웠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명절인 추석명절을 극악한 동족대결과 전쟁고취로 먹칠한 반민족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서도 불과 불이 오갈수 있는 최대열점지역을 돌아치며 대결광기를 부린 군부호전광들의 망동은 그

다 께진 미국상전의 핵우산밑에서 잔명을 유지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그야말로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뛰면서 공화국에 대한 불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있는 지금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이 민족의 운명에 조급이라도 판

본사기자 서 희



한반도 전쟁위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가 대조 선군사행동을 예고하는 전쟁망언들을 연이어 내뿜고 있어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평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유엔 무대에서 《완전과피》이니 뭐니 하며 극도의 전쟁광증을 토해냈다. 그 여운이 가시지기도 전에 얼마 전에는 《폭풍전의 고요》라는 폭언을 또 늘어놓고 트위터에 《25년동안 북조선과 대화하면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고 그에 따르는 막대한 돈도 지불되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단 한가지만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조선반도에서 군사력사용을 시사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겉떡은 개가 요란스럽게 짖어댄다고 날로 강화발전되는 공화국의 초강경공세에 전진공공하는 천하불량배, 늑다리 전쟁광패의 무지막지한 녀두리질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에 맞선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은 마지막 문구에 다달아있다. 하루빨리 미국과 힘의 균형을 갖추어 광패국가가 함부로 지껄이고 무모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는것이 공화국의 강경한 자세이고 드립 없는 의지이다. 공화국이 이미 보유한 대륙간탄도로케트와 그에 장착할수 있는 수소탄은 미국이 감히 무모한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본토가 무사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웅변해주는 위

력한 억제력이다. 조선의 핵공격능력은 최고도의 높이에 올라섰고 그것을 되돌릴수 있는 수단이나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한 신문이 현 행정부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핵강국들에 둘러싸여있는 조선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의 한 상급 연구원은 《조선의 코앞에서 (참수작전) 등해마다 벌어지는 군사연습이 더 위협하며 조선에 있어서 핵무기는 억제 수단》이라고 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직도 《북핵포기》의 망상에 사로잡혀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폭언을 늘어놓으면 미친것처럼 발작소동을 피우고있는것은 그야말로 팔불견이고 저들의 《힘》이면 다 되는듯이 아직도 착각하는 과대망상증환자의 지랄발광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에게 침략의 핵이 있다면 조선에게는 폭제의 핵을 내려치는 정의의 핵마치가 있다.

힘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오만의 극치이고 극도의 무지를 드러내는것이다. 미국이 이 것처럼 조선을 핵으로 마

구 공갈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고이다. 미국이 감히 무모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것인지는 그들 자신들도 잘 알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 내부에서 조미핵대결시 저들과 추종세력들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피해가 날수 있다는 우려의 비명소리가 나오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기를 이어 조선민족을 못살게 굴고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오고있는 철천지원수 미국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단호히 결산하려는 공화국 천만 군민의 보복의 일념과 의지는 하늘명에 차넘치고 있다. 이 쌓이고 쌓인 반미적개심과 강위력한 핵공격능력이 결합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앙을 면할수 없게 되어있다.

따지고보면 트럼프는 위협과 협박, 공갈로 부동산투기나 해먹던 장사꾼으로서 정치문외한이대도. 또 군사의 군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군사광통에 불과한자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한다는것이란 유엔 무대에서 《완전과피》나 떠들고 군부우두머리들을 만나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전쟁폭언만을 일삼는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트럼프는 각계의 반발로 반이민정책을 비롯한 핵심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사상최대의 총기탄

사사건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여론의 못매를 맞는데다가 백악관과 행정부보좌진들의 연이은 사퇴바람까지 겹쳐 지지율이 역대 최악인 2%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통치위기에 시달리고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는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소동에 더욱 미친듯이 매어달리면서 여론을 기만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망동은 조선에는 통할수 없는 어리광대짓일뿐이다. 늑다리 전쟁광패가 높아대는 꼴이 얼마나 저속하고 팔불견이었으면 측근들대로 용서치 않고 단호히 결산하려는 공화국 천만 군민의 보복의 일념과 의지는 하늘명에 차넘치고 있다. 이 쌓이고 쌓인 반미적개심과 강위력한 핵공격능력이 결합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앙을 면할수 없게 되어있다.

따지고보면 트럼프는 위협과 협박, 공갈로 부동산투기나 해먹던 장사꾼으로서 정치문외한이대도. 또 군사의 군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군사광통에 불과한자이다. 이런 자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한다는것이란 유엔 무대에서 《완전과피》나 떠들고 군부우두머리들을 만나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전쟁폭언만을 일삼는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트럼프는 각계의 반발로 반이민정책을 비롯한 핵심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사상최대의 총기탄

본사기자 김응철

핵전쟁위협대가를 치내야 할 것인가

지금 미국의 핵전쟁마차가 무섭게 질주하고있다. 지난 25년간 중지하였던 핵시험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1945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47년간 미중에서 각국 핵시험이 무려 1054회나 진행되었으며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세계가 미국의 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핵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떠벌어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낡은 핵무기의 현대화와 신형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핵시험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내에서 다시 머리를 쳐들고있다.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보수적경향의 연구기관들과 전 국방성 핵무기국(현 국방위협감소국) 국장 로버트 먼로 등 보수강경파들의 입에서 《안보환경이 냉전때보다 복잡해졌다.》, 《미의회는 핵시험대도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를 때까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노력을 중단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내달릴것이다.》

《핵시험을 영원히 재개하지 않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하게 될것》이라는 핵시험재개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로골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트럼프행정부가 기존 핵무기의 수명연장과 새로 개발되는 핵탄두의 성능검증을 위해 핵시험을 재개할수 있다.》, 《트럼프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오바마가 봉쇄해놓았던 핵시험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으려 할수 있다.》, 《미국의 핵시험재개가 국제적인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킬수 있다.》고 앞을 닦아보도하고있다.

미국의 핵시험재개움직임은 명백히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류에게 참혹한 핵참화를 들썩운 유일한 핵전쟁범국이다. 지금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는 인류를 몇번 살상하고도 남는 수 천여개나 된다. 뿐만아니라 강도적인 핵위협과 공갈로 지구상에 여러 핵보유국이 생겨나게 한 핵전쟁범죄국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야 할 악의 제국이다. 이러한 최극진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가장 오래된 핵탄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터뜨려 봐야 한다.》는 폭언들이 튀어나오고있는가 하면 백악관내에서도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그렇게도 세계평화와 안전을 걱정한다면 핵시험재개와 같은 망동을 벌일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핵문제를 산생시킨 저들부터 핵군축에 나서는것이 마땅한 순리이다.

《세계가 미국의 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핵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쉼튼 트럼프의 망상은 핵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검은 기도를 날날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저들의 핵몽둥이앞에 설설 기며 노예로 살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것이 미국의 날강도적본리이다. 일찌기 세계적인 대문호인 조선의 백인준선생은 풍자시 《별거벗은 아메리카》를 내놓아 미국의 위선적인 정체를 날날이 파헤쳐놓은바 있다.

오늘날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망동으로 세계제패야망에 환장한 미국의 흉악무도한 물골은 더욱더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 최대의 암적존재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에 각성시켜 대하며 그것을 저지되라시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정의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편에 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이 행성의 가장 큰 거짓말

— 《북핵이 세계를 위협한다》는 타령을 놓고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핵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부대통령 펜스, 국무장관 틸러슨 등이 매일과 같이 나서서 《북조선이 무모한 핵도발로 동북아시아뿐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있다.》, 《북조선의 핵을 그대로 용인하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하다.》, 《이런 위협은 전 세계적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고야대면서 국제사회를 공화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초강도제재 압박에로 몰아내고있다.

가재는 제편이라고 여기에 일본, 남조선당국과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합세하여 《북조선의 핵, 미싸일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되고있다.》, 《국제공동체는 단합해서 북조선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거부감과 제재 압박분위기를 확대해보려고 악착스레 높아내고있다.

이것은 눈앞에 박두한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자국본토에도 수소탄을 날려보낼수 있는 공화국의 대미핵공격능력의 급속한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은 제 혼자힘으로는 공화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을 도저히 막을수 없게 되자 국제사회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총발동하여 대조선제재와 압살의 포위망을 형성해보려고 이따위 말도 안되는 《세계에 대한 위협》 타령을 늘어내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수 없듯

이 첩두첩미 미국을 겨냥한 조선의 자위의 핵이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는 없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의 핵은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을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피어린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과물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행성에서 공화국처럼 미국의 핵위협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아온 나라는 없다.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그해에 벌써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1950년 11월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과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서 지속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된 사실, 또한 같은해 12월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폭언한 사실과 당시 인천알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항공모함에 핵탄을 탑재한 함재기들이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는 력사적 사실들이 명백히 실증해준다.

1952년에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하

면서 그 다음해에는 조선에서 《원자탄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하여야 할것이다.》라는 폭언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미국의 이런 집요한 핵공갈 때문에 방사능화염에서 벗어나려는 피난민행렬이 생기고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오늘날까지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며 사는 비극도 산생되게 되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각종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미국은 1957년 7월 남조선 감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언하였으며 이때부터 미국제핵무기들이 쓸어들어와 1990년대에는 그 수가 172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는 각종 북침전쟁연습들도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기 위한 위협천만만 북침핵전쟁연습들이다.

이처럼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까지 엄중히 위협해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온 민족이 핵참화를 입을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엄혹한 사태하에서 공화국이 자위를 위해 부득불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것은 누가 보아도 백번천번 정당한 선택이고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로 된다.

미국의 국제정치문제연구소 기관지 《포린 폴리시 포커스》가 《부쉬는 집권초기부터 북조선을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거칠게 대해음으로써 결국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폭로하고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당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부쉬행정부 집권후 북조선과 직접 대상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핵악몽이 일어나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실만으로도 공화국을 핵보유의 길로 떠났것이 바로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로골적인 핵위협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핵무기로 자기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오늘도 《화염과 분노》, 《완전과피》를 떠벌며 극악한 핵사용폭언까지 마구 늘어놓는 미국, 인륜도덕과 국제법, 유엔적인 핵위협이 제하고픈 행동은 다 하는 제국주의 광패의 나라 미국과는 오직 핵으로 맞서야 자기를 지킬수 있다.

조선은 그래서 핵보유국이 되었고 지금은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쉼 세계적대륙간강국으로 도약하였다. 핵과 수소탄을 장착할수 있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겨는 침략의 본거지인 미국

인류의 머리에 처음으로 핵버섯구름을 피워올렸으며 조선민족을 항시적으로 핵위협공갈해온 악의 제국, 엄청난 핵무기를 배경으로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횡을 마구 일삼는 미국의 폭제의 핵을 짓누르는 정의의 핵마치가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되던 되었던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핵이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강도의 논리이고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꾀변에 불과하다.

력사와 현실은 아무리 선풍하고 정당하여도 자기의 힘이 강하지 못하면 강자들의 룡락물이 되어 종당에는 노예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바로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전 이라크정권이 미국에 기대를 걸고 평화를 구걸하였지만 전쟁을 막지 못하였으며 미국은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무력침공으로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고 타고갔다. 누구나 다 알고있듯이 이라크는 그 전쟁의 후과에서 오늘날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리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시험을 영원히 재개하지 않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하게 될것》이라는 핵시험재개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로골적으로 울려나오고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트럼프행정부가 기존 핵무기의 수명연장과 새로 개발되는 핵탄두의 성능검증을 위해 핵시험을 재개할수 있다.》, 《트럼프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오바마가 봉쇄해놓았던 핵시험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으려 할수 있다.》, 《미국의 핵시험재개가 국제적인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킬수 있다.》고 앞을 닦아보도하고있다.

미국의 핵시험재개움직임은 명백히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류에게 참혹한 핵참화를 들썩운 유일한 핵전쟁범국이다. 지금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는 인류를 몇번 살상하고도 남는 수 천여개나 된다.

뿐만아니라 강도적인 핵위협과 공갈로 지구상에 여러 핵보유국이 생겨나게 한 핵전쟁범죄국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야 할 악의 제국이다. 이러한 최극진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가장 오래된 핵탄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터뜨려 봐야 한다.》는 폭언들이 튀어나오고있는가 하면 백악관내에서도

현실은 핵으로 세계를

만약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면 불행과 고통의 참화속에 시달리고있는 이라크와 리비아의 비극이 조선반도에서도 산생되었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다.

오늘 공화국이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있고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찌기 불수 없었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것도 품들여 마련한 강위력한 자위의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공화국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억제력이고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을 들썩우려는 폭제의 핵구름을 몰아내고 인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갈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인 것이다.

공화국의 핵은 철저히 악의 제국 미국을 겨냥한것으로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세계의 다른 지역과 나라들에는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나라와 민족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쉼치는 《북조선 핵위협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과연 행성의 어디에 정의와 진리, 평화가 있는가를 똑바로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미국은 력사에서 배워야 한다

력사는 체험과 교훈을 낳고 진리를 새긴다는 말이 있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력사를 무심히 대하지 않으며 력사를 거울로 삼아 오늘을 비쳐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력사에서 배우고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무식하고도 우직스러운 자들도 있다.

끈질기게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는 미국이 바로 그렇다.

얼마전에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 들다못해 《완전과피》라는 극단적인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2500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를 《완전과피》 하겠다고 췌친 트럼프.

이것은 한 주권국가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위협으로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공화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궁극적목표인 것이다.

하다면 미국의 기도가 과연 실현될수 있는 것인가.

홀려온 력사를 돌이켜

보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오랜 기간의 조미대결에서 미국은 언제 한번 공화국을 이겨본 적이 없다.

미국은 언제나 수치스러운 패배를, 공화국은 항상 이기기만 한 것이 어길수 없는 전통으로 되어 왔다.

오래전인 1960년대에 있는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을 되새겨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1968년 1월 23일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원산부근 려도로부터 7.6mile 되는 수역에까지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1000여t급)와 거기에 사료 80여명의 선원들을 사로잡았다.

《푸에블로》 호로 말하면 미중앙정보국에서 직접 파견한 무장간첩선으로서 거기에는 전과를 잡아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기지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아주 정밀하고 현대적인 여러가지 정탐설비들이 설치되어있었다. 선원들이 가지고있던 지도에

는 공화국 군사기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었으며 또 함선위치일일기록부에는 벌써 1967년 12월에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사세보항을 떠나 공화국령해에 여러차례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의 나포는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푸에블로》 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었다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니, 포로들을 학대하고 때려죽였다는니 하는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군사적위협으로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하였다.

미국은 1월 24일과 25일에 련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속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공화국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가 감행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공화국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이 간첩선과 선원들을 놓아주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를 잘못 보았다.

조선은 결코 미국이 고향을 치며 위협을 가한다고 하여 움츠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주저도 없는 주대가 세고 배짱이 강한 나라인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지구를 들끓는 조선의 이 폭란같은 선언에 미국은 혼비백산했고 마침내는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가 감행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함선도 공화국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근 1년간 세계를 범석 뿜게 하였던 《푸에블로》 호사건이 끝을 맺었다.

지금 《푸에블로》 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이 자리잡고있는 평양의 보통강반에 끌려와 도발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력사의 산증거물로 되고있다.

그후에도 미국은 빈번히 공화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곤 하였다.

《EC-12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 ...

하지만 그때마다 수치스러운 패배의 운명을 감수한 것이 다름아닌 미국이었다는 것을 력사는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국이 공화국의 정당한 핵억제력강화와 로켓발사를 걸고들면서 초강도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는 것을 보노라면 꼭 《푸에블로》 호사건이 벌어지면 때를 련상케 한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세계를 위협》하고있다는 미국의 황당한 주장은 《푸에블로》 호가 《공해상에 있었다.》, 《간첩선이 아니다.》고 생억지를 부리던 그때의 철면피한 미국그대로이고 공화국을 《완전과피》 하

겠다는 트럼프의 망발은 존슨의 《군사적보복조치》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미국의 침략적 본성,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다 적대적이고 악랄한 미치광이가 대통령자리에 앉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푸에블로》 호사건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다.

《푸에블로》 호사건때에도 미국은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사 전쟁이라도 일으킬듯이 항공모함전단을 조선 동해에 파견한다, 《원산을 폭격하겠다.》며 갖은 지랄발광을 다하였지만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의 초강경자세와 만류의 전투태세에 밀려서 나중에는 사죄문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과 끝까지 맞서싸우려는 조선의 초강경 반미자세는 그때에 비해 지금 천 배로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가진 미국과 대적하여 이겼는데 지금 조선의 힘철면피한 미국그대로이고 수 없게 훨씬 강화되었

다. 대륙간탄도로켓과 그에 장착할수 있는 수소탄을 보유하고 미국본토도 단숨에 불바다에 잠글수 있게 군력은 최대로 강화되었다. 미국이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핵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보유한 조선과 끝까지 맞서보았었다 얻을것은 치욕과 자멸뿐이다.

트럼프가 부취, 오바마를 비롯하여 력대 미국대통령이 조선과의 대결에서 실패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그것은 주체조선의 불맛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마구 헤덤비며 허장성세하는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멸적의 의지로 가슴끓이고있다.

미국이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감히 불을 단다면 그것은 아메리카제국의 비참한 최후과멸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얼마전 남조선 당국이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2차특별회의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에 있는 1차특별회의 때만 해도 남조선당국은 협정개정을 강박하는 미국에게 호상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하자고 하면서 엇서는 척 하였지만 트럼프까지 나서서 협정폐기를 고아대자 겁을 먹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가 설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흔저감하는 미국에 의해 남조선당국이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은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겁을 먹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협상합의는 전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은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협상이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세계적

으로 인정된 미치광이 트럼프의 말에 놀아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의 개정협상수용적임을 반대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개정협상에서 남조선이 사정없이 물아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농축산물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에 두손을 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식민지하수인 따위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색과 미국을 하나비로 섬겨온 력대 남조선 당국의 친미굴종적행위의 필연적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관세철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장을 쉽게 뚫고 들어가 리익을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남조선이 미국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남조선경제를 더욱 철저히 거머쥘 흥심밀에 리명박 《정권》기간 역도를 강박하여 체결한 날강도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으로서 남조선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미국의 의무조항이 7개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남조선이 걸려진 의무조항은 무려 55개에 달하는 이 《협정》으로 하여 남조선은 수출기업의 50%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무역품종의 80% 이상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리익만을 추구하고 남조선경제를 미상전의 지배와 예속에 몰아넣기 위한 올가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그것도 성에 차지 않은지 《나쁜 거래》, 《끔찍한 협정》이라고 떠들며 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협정》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남이야 죽든 살든 오직 제 밥그릇의 량만 라발하는 덩지값도 못하는 식충이의 추한 모습 그대로이다.

장장 70여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각종 예속의 올가미를 들썩이민들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 저들의 배를 불러온 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미국의 흥악한 심보를 뻔히 알면서도 한 마디 내꾸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물지 않을수밖에 없는 현 남조선당국의 가련한 처지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당시 《망국적인 현대판 을사조약》, 《조유의 불평등조약》이라고 반대하였던 것이 바로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말로는 《당당하게 대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심을 배반하고 미국에 굴복하여 인민들의 리익과 생존권을 팔아먹으려는 현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에 대한 친미굴종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치욕은 계속될 것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락탈대상, 먹이감의 처지에서 언제 가도 벗어날수 없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속

오늘은 게골뱅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게골뱅이는 게골뱅이아목의 갑각류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대가리가슴부는 게홍내를 내며 갑각으로 덮여 있지만 배부분인 아래도리가 허약하여 천성적인지 본능적인지 골뱅이의 빈조가비속에 들어박혀 산다고 하여 게골뱅이라고 한다.

골뱅이껍데기속에 들어가 쉽게 아래도리는 원래부터 굵어있던지.

일반적으로 바위꽃과 공생하는데 바위꽃이 먹다버리는 찌꺼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게골뱅이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바로 력대 남조선 《정권》입니다.

명색상 《정권》감투는 쓰고있지만 민족적자존심이 없이 공미승미로 만들어진 《〈한〉미동맹》이라는 껍데기를 쓰고사는 식민지무굴종, 미국이 선심쓰는 경제와 국방의 잉여부산물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겨우살이들이 바로 력대 남조선 《정권》이였습니다.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한 초불민심에 의해 태어났다고 하는 현 《정권》은 좀 다물가했더니 역시 게골뱅이의 천성은 버리지 못하는구만요.

집권자자체가 미국에 대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주의교》를 하겠다더니 사대와 굴종, 아속의 스스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집권하기 바쁘게 선임

자들보다 《초고속》으로 미국에 날아가 한다는 소리가 《저의 뿌리는 〈한〉미동맹의 력사속에 있다.》면서 민족을 모독했고 《초불혁명은 미국이 이식해준 미국식민주주의가 활짝 피운 꽃》이라고 초불민심까지 모독했습니다.

나아가서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우에서 〈북핵폐기〉와 〈한〉반도평화, 나아가 동북아

《대북단독진입 및 타격》을 노린 북침전쟁 《개념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을 《단호히 대처해주어 감사하다.》, 《그런 강력함이 북을 반드시 변화시킬것》이라고 말끝마다 개여올리니 현 남조선당국을 뭐라고 불러야 할가요.

경제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집권자가 미국을 찾아가

수백억US\$를 섬겨바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구걸했지만 트럼프는 불평등적인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남조선이 양보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손을 떼겠다.》며 《미치광이전략》을 휘두르고있습니다.

미국이 강요한 《싸가핵무력완성을 위한 폭음에 새벽닭소리를 들은 밤도깨비처럼 놀란 미국은 《화염과 분노》, 《참수작전》, 《완전과피》를 고아냅니다.

남조선당국이 《전쟁은 절대 안된다.》고 애원하지만 미국은 《전쟁을 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하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지 미국본토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꺼리낌없이 뇌까렸습니다. 얼마전에 부와 조공의 《조가비》이는 《전쟁을 할수 없다.》고 흰소리치는 남조선집권자가 메사하게

침략동맹, 전쟁동맹이고 미국이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제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예속동맹이며 남조선주인들을 《들쥐》로 모독하며 마구 살인, 락탈해도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는 굴종동맹입니다.

그런 치욕의 껍데기를 쓰고있는 통에 녹아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뿐인데도 《위대한 동맹》, 《강력한 힘》, 《풍성한 나무》라고 하는 집권자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초불세력들이 집권자와 당국을 《미국의 개, 초불민심의 배신자》, 《박근혜의 대결정책과 같다.》고 욕을 하며 《〈정권〉이 자중지란에 빠져들었다.》고 강하게 비난하겠습니까.

주변나라들도 미국에 추종하여 《〈한〉미동맹》에만 빠져있는 남조선당국을 《어리석은 바보》, 《강대국짚에 끼운 개구리밥신세》라고 야유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강아지의 소원은 빠다귀 한개라고 초불민심이 바라던 새 정치, 새 생활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흔드는 올가미를 부여잡고 《정권》유지에 급급하는 남조선집권자가 가련합니다.

사대와 예속, 매국과 배신으로 얼룩진 《〈한〉미동맹》에 의거하여 비루한 목숨을 연명하기에 혈떡거리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게골뱅이》라 해야 마땅할것입니다.

김정혁

만필 《게골뱅이》

적폐청산은 단호하고 철저해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시기의 적폐들을 들추어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낡고 부패한 법과 제도를 《개혁》한다는 적폐청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 《개혁》에 제일 반기를 들었던 정보원,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 보수의 본거지들부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이곳에 틀고앉아 있던 보수패당을 축출하고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올려앉혀 《적폐청산의 선봉대》로 내세우고 있으며 박근혜에 이어 리명박역도도 법적심판대우에 올려세우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세력들은 적폐청산을 선행정치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고아

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시》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당국의 적폐청산을 놓고 《이러한 퇴행적시도는 〈국익〉을 해칠뿐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다.》고 회답하며 떠벌이고 있다.

이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기습으로 밀려난 산송장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오늘 남조선의 현실은 초불민심이 바라는데로 보수패당이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그 밑뿌리까지 깨개 파헤쳐 적폐왕초들인 리명박, 박근혜역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리멸렬의 나라에서 헤어나보려고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는 보수패거리들을 무자비하게 짓밟

버리지 않는다면 남조선에서 또다시 파썸과 불의가 판을 치는 과거의 암흑시대가 되풀이될수밖에 없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독초는 뿌리채 말끔히 제거해버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다. 다시금 되살아나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보수패당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반보수투쟁을 초불투쟁의 그 기세로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심각하게 새겨주는 교훈이다.

현시기 적폐증의 적폐는 보수패당의 추악한 친미굴종, 동족대결범죄와 행적이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와 《싸드》배치,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재협상을 비롯한 많은 문제

들에서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과거 보수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싸드》문제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지난 시기 《싸드》배치의 《재검토》를 떠들며 마치 큰일이라도 칠것처럼 놀아대던 남조선당국자가 《싸드》추가배치를 강행한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사회현실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더이상 초불 (정권)이 아니다.》라는 저주와 규탄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총과업에 나선 남조선 노동자들도 노동권보장과 함께 《동족대결반대》, 《〈싸드〉철폐》, 《중속적인 〈한〉미 동맹폐기》 등을 투쟁구호로 내걸고 격렬하게 투쟁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보수 《정권》의 적폐를 단호히, 철저히 청산하려는것은 초불민심의 요구이다.

추악한 친미굴종, 동족대결범죄와 행적을 철저히 청산하는것이야말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최근 남조선의 여야 당들이 다음해 6월에 있을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파의 《통합》과 《연대》를 떠들며대면서 부산을 피워대고 있다.

당리당락에 따라 서로 결탁하는 정계개편 움직임이지만 《보수대통령》을 시도하는 보수야당들의 움직임이 남조선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낮은 지지률에다가 보수층까지 분열되어있기때문에 다음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완전한 패하여 지리멸렬할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패들은 당 지지률을 끌어올리려고 보수층을 집결하려던 《보수대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를 내오고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신인 《새누리당》때부터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해온 범죄자들의 집단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새누

리당》과 함께 집권 4년간 저지른 죄악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의 통합파들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협담까지 퍼부어왔었다.

지금 남조선의 《국민의 당》패들이 벌려놓고있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움직임도 보수패당에게 숨통을 열어주고 초불민심을 배신하는 역적행위로 된다. 그것이 《바른정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통합파들이 《자유한국당》에 가붙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보수세력들은 《보수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악을 써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은자들의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몸부림치고있는 보수세력의 운명을 완전히 끝장내자는것이 남조선 각계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야당들은 이러한 민심을 알고 스스로 당을 해체함이 마땅하다.

오죽 역겨웠으면 《자유한국당》내에서까지 파벌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나타내고 협담까지 퍼부어왔었다.

지금 남조선의 《국민의 당》패들이 벌려놓고있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움직임도 보수패당에게 숨통을 열어주고 초불민심을 배신하는 역적행위로 된다. 그것이 《바른정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통합파들이 《자유한국당》에 가붙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보수세력들은 《보수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악을 써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은자들의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몸부림치고있는 보수세력의 운명을 완전히 끝장내자는것이 남조선 각계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야당들은 이러한 민심을 알고 스스로 당을 해체함이 마땅하다.

들에서 미국의 강박에 못이겨 과거 보수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싸드》문제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지난 시기 《싸드》배치의 《재검토》를 떠들며 마치 큰일이라도 칠것처럼 놀아대던 남조선당국자가 《싸드》추가배치를 강행한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사회현실은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 《더이상 초불 (정권)이 아니다.》라는 저주와 규탄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총과업에 나선 남조선 노동자들도 노동권보장과 함께 《동족대결반대》, 《〈싸드〉철폐》, 《중속적인 〈한〉미 동맹폐기》 등을 투쟁구호로 내걸고 격렬하게 투쟁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보수 《정권》의 적폐를 단호히, 철저히 청산하려는것은 초불민심의 요구이다.

추악한 친미굴종, 동족대결범죄와 행적을 철저히 청산하는것이야말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본사기자 최 광혁

반인권적 권력유지 정예군 장악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구속기한이 끝나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의 구속기간연장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박근혜는 탄핵된지 21일만에 특대형범죄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4월 17일에는 재판에 정식 기소되어 지금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16일까지 박근혜의 구속을 연장할데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경우 박근혜는 석방되게 되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남조선검찰은 박근혜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앞서 검찰수사나 탄핵심판, 재판중인 소환 등 지금까지의 태도로 볼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구속령장발부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세력들은 박근혜의 구속기간연장을 강하게 요

구해나서고 있다.

박근혜역도의 특대형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남녘민심의 요구이다.

박근혜가 남조선정치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파 함께 전두환, 로태우에 이어 세번째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구속된것은 집권기간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른 응당한 징벌이다.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조종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년봉제》와 같은 악정으로 인민들의 생활치지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내몰고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과 언론을 강제해산, 폐간시킨 행위,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수장시키고 그 피해자유가족들을 감금, 탄압한 행위, 생존권을 요구하여나선 농민을 학살한 만행 등 박근혜의 반인민적, 반인권적악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유신》독재, 사대매국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애국》으로 분칠하고 동서남북이 좁다하게 동족대결소동에 미쳐날뛰다 못해 개성공업지구를 결판내고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발발전야의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몰아간 죄악까지 합치면 박근혜는 이미 극형에 처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친하의 범죄자가 재판기간 자기의 범죄혐의를 한사코 부정하며 서 무죄를 주장하며 변변

스럽게 놀아댄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반역죄에는 관용이 있을수 없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데로 박근혜역도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만이 특대형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범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가관은 《무죄석방》이라는 황당한 나발을 붙여대며 박근혜역도를 비호두둔해나서고있는 보수잔당들의 가련한 추태이다.

지금 《대한에국당》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은 박근혜의 《즉각석방》을 쫓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단식통성을 한다 하며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대표라는자도 박근혜에 대한 구속령장을 재발부하는것은 《너무 과하다.》고 피대를 두르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갈아엎고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요구를 실현하자면 박근혜역도는 물론 극악한 공범자무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잔당들까지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예리한 눈초리가 되어 박근혜의 구속기간연장을 결정할 법원을 주시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영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시대의 찌꺼기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의 파멸과 함께 보수 세력전반이 붕괴되고있는 가운데 한때 리명박, 박근혜를 등에 업고 기승을 부리던 극우보수단체들도 풍전등화의 가련한 운명에 처하였다.

친미보수 《정권》으로부터 해마다 수많은 활동자금을 정상적으로 타먹으며 반역통치비호에 앞장섰던 《자유총련맹》, 《어버이런합》,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적폐청산대상이라 되어 사무실들이 압수수색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우두머리들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줄줄이 구속되면서 보수단체들은 그야말로 해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집권시기 거의 매일처럼 거리에 몰려나와 란동을 부리던 《어버이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이 지난 5월부터는 완전히 움츠러들어 시위놀음은 벌리지도 못하고있으며 최근 일부 몇몇 악질보수세력들이 《박근혜무죄석방》을 쫓으며 집회라는것을 벌려놓았지만 오히려 사회적비난과 란대만을 받았다.

최근 지은테로 가고 물은 꺾을 따라 흐른다고 정의와 민심을 거역하며 보수 《정권》의 너절한 앞잡이노릇을 해온 쓰레기들의 말로가 달리될수 없는 법이다.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

권》이 온갖 음모적인 방법과 기만술수로 인민들을 우롱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친미보수 《정권》은 악질보수단체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막후에서 조종하며 저들의 반역정책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내몰아왔다.

《어버이런합》, 《자유총련맹》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은 몇푼의 돈만을 받아먹고 리명박, 박근혜패당이 내놓는 정책이라면 그것이 반인민적이든 매국적이든 가리지 않고 무작정 지지하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위협공갈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면서 친미보수 《정권》의 충실한 파수꾼노릇을 하였다.

《어버이런합》만 놓고 보아도 이 악질보수단체의 떨거지들은 박근혜역도의 《대통령》당신을 조작한 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방도를 규탄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을 《종북세력의 정치선동》으로, 《정보원악화 시도》로 걸고들며 란동을 부리었으며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복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로 모독하다 못해 분향소를 습격하는 깡패짓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패당의 위험천만한 《싸드》배치책동과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조작놀음

을 적극 지지하고 《세월》호참사와 백남기농민사망사건 등 주요계기마다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악랄하게 시비질하고 나중에는 흥기까지 들고나와 위협하며 살인범죄까지 일삼은것도 《자유총련맹》,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패거리들이었다.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참가자들을 《국가반란세력》, 《종북세력》으로 모독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모조리 총으로 쏘죽여야 한다.》, 《만약 (대통령)을 탄핵하면 시가전이 벌어지고 거리가 피바다로 될것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악청을 질러대며 초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주변의 상점, 식당등에 물러들어가 온갖 행패를 다 부린 보수깡패들의 망동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할 죄악이다.

이처럼 친미보수 《정권》시기 역적패당의 조종하에 형형색색의 보수단체들이 활개치며 기승을 부림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친미시대와 동족대결이 판을 치고 중세기적인 《마녀사냥》, 《종북》소동으로 통일애국세력들이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등 사회전반에 온갖 불의와 악이 더욱 횡행하였다.

인간의 량심과 체면도 다 쫓아내고 몇푼의 돈에 팔려 시대매국과 동족대결, 온갖 악행만 일삼던 보수패거리들이 박근혜역도의 파멸과 함께 밭통이 떨어져 바퀴새끼처럼 흩어져버리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파멸은 민족을 반역하고 민심에 역행하며 매국의 길을 걷는자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본사기자 주 광일

민심이 버림을 받아자들의 가련한 몸부림



《백두산 8경》 (2)

백두산의 령봉들 가운데서 향도봉은 세번째로 높고 웅장한 봉우리이다. 해발높이가 2 712m 인 향도봉의 바깥경사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쓰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

향도봉은 수직에 가까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에 의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감정으로 되새겨보게 한다.

친필글밭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의 혈통을 꽃피이 이어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새차게 맥차고있다.

향도봉의 친필글밭

사람들은 무두봉을 지나 산림한계선에 이르면 처음에는 마주 바라보이는 높은 산들 가운데서 어느것이 백두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한다.

그러다가 안개나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향도봉의 친필글밭이 바라보이면 누구나 저도 모르게 《백두산이다!》라는 탄성을 터뜨리며 역제할수 없는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휩싸이게 된다. 이처럼 향도봉에 새겨

운 벼랑과 일정한 각도의 등성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경사면과 마루는 붉은색 화산용암의 슬라크형응회암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척 보면 마치도 힘차게 휘날리는 대형의 붉은 기폭을 연상시킨다. 예로부터 하늘왕이 내린 곳이라고 하여 천왕봉으로 불리우는 향도봉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

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를 백옥같은 총정과 넓은 담야 향도봉의 바깥경사면에 그이의 친필글밭을 삼가 새기었다.

향도봉의 조형미에 어울리게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진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밭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자주의 기치높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어

호평받는 《아침》 전자제품들

최근 공화국의 아침컴퓨터 합영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침》 휴대용 컴퓨터와 수자식액정TV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력소비가 적고 가격이 낮은 《아침》 휴대용 컴퓨터는 성능이 대단히 높고 가벼우며 외형이 세련된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밖에도 이곳 회사에서는 《아침》 탁상용 컴퓨터

와 일체식 컴퓨터, 판형 컴퓨터 등 여러 기종의 성능 좋은 컴퓨터들도 생산하고있다.

《아침》 수자식액정TV는 수자식TV신호변환기능이 내장되어있으며 선명한 화질과 맑은 음질로 하여 화면의 현실감을 최대로 보장해주며 눈에 자극을 적게 주어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할뿐 아니라 전력소비가 아주 적은 우점

을 가지고있다. 이곳에서는 여러 크기(32, 42, 50, 55, 65in)의 수자식액정TV를 생산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이상의 크기도 주문생산해준다.

《아침》 휴대용 컴퓨터와 수자식액정TV는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아침 컴퓨터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본사기자

10월에 가장 유익한 식품들

10월에는 우울해진 기분상태와 가을철감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합리적인 식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한다.

◆ 사과 사과에는 섬유소와 유기산, 칼리움, 나트륨, 철, 린, 요드 등이 들어 있다.

사과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수치가 낮아지고 소화가 정상화되며 분류성동맥경화증이 예방될뿐 아니라 인체가 건강해진다. 또한 뇌활동이 촉진되고 신경계통이 강화된다.

◆ 송어 송어의 유용물질들은 항산화물질로서 뇌활동과 심장기능, 지방조직량

을 조절하고 고혈압과 분류성동맥경화증, 중앙면역질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고열량식품으로서 100g당 열량이 263kcal이다. 위염과 단순성 및 악성빈혈증치로시기때문에 돼지고기를 식사에 포함시키면 좋다.

본사기자

《동의보감》은 16세기까지의 우리 나라 고령의학발전의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한때 어의(봉건시기 왕의 치료를 담당한 의원)를 지낸적도 있는 이름난 고려의학자 허준(1540—1615)이 선행시기의 약재들과 의료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자기

의 임상실천활동에서 얻은 새로운 의학기술과 경험들을 종합하여 1596년—1610년에 이 책을 편찬하였다.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1433년)을 비롯하여 이전시기의 많은 의학책들의 내용을 인용하여 편찬하였는데 여기서 허준은 매

개 처방에 대하여 일일이 분석검토하고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책에는 특히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던 치료방법까지도 수록하고있다.

《동의보감》은 목록 차례에 걸쳐 다시 출판되었으며 이웃나라들에서도 출판되었다.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함께 우리나라 총 25권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수록된 처방은 매우 많은데 매 처방에는 인용한 저서의 출처를 밝혀놓아 해당 처방의 과학성을 담보하였다.

《동의보감》은 이전시기의 의학책들과 달

리 독특한 서술체계를 가지고있으며 그 내용이 연구한 결과를 정리 치료의학에 선행시킬것을 주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있다.

《동의보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출판되었으며 이웃나라들에서도 출판되었다.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함께 우리나라 총 25권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수록된 처방은 매우 많은데 매 처방에는 인용한 저서의 출처를 밝혀놓아 해당 처방의 과학성을 담보하였다.

《동의보감》은 이전시기의 의학책들과 달



구월산의 월정사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8)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권람이 하는 인사말 역시 비양기가 섞이였으나 서로 내색을 앓고 마주앉았다.

《파시 그런데 없는 소문이였소그려.》

병풍앞에 다가선 권람은 속이 알찌근한대로 병풍속의 그림과 거기에 씌여진 시구를 한동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병풍의 여기저기를 만져보면 시의 뜻을 음미해보던 권람의 얼굴에서 조금전의 알찌근해하던 기색이 가뭏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이건 대관절 어디서 구하셨소?》

권람이 한명회에게 물었다.

《조금전에 말하지 않았소. 웬 길손이 내게 그 저 준것을 그럴수 없어 내 집에 있던 귀한 자개박이 금장농을 그에게 주었다구.》

《그 값진 금장농을?》 (아빠씨!)

권람이 묻는 말에 대답

을 하던 한명회가 이렇게 갑자기 입을 다문것은 혹시 그가 자기를 퇴물이나 받은것으로 여길것 같아 속이 없는 청렴함을 내보인다는것이 그만 실언을 하였기때문이었다.

제 몸값을 올리느라 여적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던 금장농과 바꾸었다는 말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간것이었다.

한명회가 자기의 실언을 후회하였으나 엇지른 물을 어찌 다시 담을수 있으리오.

《허, 대감께서 어쩌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다 하셨소?》

《실수라니? 그건 무슨 당치않은 말씀이시요?》 실수라는 권람의 말에 한명회는 펄쩍 놀라며 물었다. 그 물음에는 대답을 앓고 권람이 또 물었다.

《그럼 이 글귀는 누가 써주었소?》

《그건 글 잘하는 어떤 스님이 쓴건데 거 뭐 잘못

된거라도 있으시오?》 권람의 물음에 한명회는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어지간히 짜증이 나기도 하였다.

《어서 말을 해야 알지 않겠소.》

《정말로 큰 실수를 하셨소그려.》

《이거야 어디 화가 나서 견딜수가 있나. 무슨 놈의 감투끈인지 말을 해야 실수인지 아닌지 알게 아니겠소. 혹시 심기가 뒤틀려서 그러는건 아니시오?》

잔뜩 불이 부은 한명회가 더 참지를 못하고 팔을 내었다.

《심기가 뒤틀리다니?... 헛 참, 무슨 그런 소릴 망탕하는거요?》

한명회의 불부는 말에 권람은 어지간히 벨이 팔리였으나 그가 어떤자들에게 속히웠는지는 몰라도 이런 속임수를 당하고도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이 참

으로 가련하지 앓을수가 없었다.

권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내 말을 들어보시우. 이 병풍은 가짜가 분명하거나 그런즉 그림이야 더 말해 뵈하겠소.》

《가짜라니?》

한명회는 펄쩍 뛰었다. 《아직도 믿지 않으시

는군. 그러지 말고 내 말마저 듣소그려. 이 병풍

망정 천년가까이 한 재질로는 어렵없는 거짓인것이요.》

이렇게 말하며 권람은 자기의 말을 증명하려고 병풍변두리 한끝을 약간 터치고 한명회에게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옷칠 결면을 헤친 손톱자리가 나 있었다.

《이게 사실이요? 이놈이 언감 나를!》 한명회는 한날 장사치에 불과한 놈에게 당한 창

《험담일랑 이젠 그만 하오. 아무려면...》 하고 한명회가 말꼬리를 늘이는데 권람은 이에 개의치 않고 나가는 말을 그대로 내뱉었다.

《그럼 대감이 어디 한번 그 글귀를 음미해보오.》

권람의 말대로 한명회가 내키지 않는대로 글귀의 뜻을 새겨보느라니 과연 그의 말이 옳은듯싶었다. 실상 한명회는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강태공과 자기의 지난날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였었다.

《어이쿠, 이놈들이, 짐승보다 못한것들이 감히 나를 놀려대? 어허이구...》

한명회는 기가 막혀 더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허허허.》

억이 막혀 망건을 쥐여 뜯는 한명회의 꼴이 우스웠던지 권람이 이렇게 허거픈 웃음을 짓는데 덩달아 옆에 서있던 하인들도 따라서 키득거렸다. 이에 화가 동한 한명회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이놈들아, 무엇이 좋아 그리고 너털대는거냐. 여봐라! 그 증놈과 장

사치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나 김시습이 그에 게 자기는 인왕사에 있다고 하였다한들 자기를 붙잡으라고 있는 곳을 사실대로 알려주었을것이며 행방없이 떠돌아다니는 장사군은 대관절 어디 가서 잡아올것인가.

《그 처죽일 놈들을 당장 붙잡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놈들부터 사지를 찢어죽일테다.》

한명회의 입에서 허연 게거품이 흘러나왔다.

《허 대감, 너무 이리지만오. 그러다가 정신까지 잃으시면 어쩌겠소.》

《듣기 싫다. 아이구 머리아.》

권람이 위로하는 말이 어쩐지 개고소해하는듯싶이 여겨져 한명회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머리를 싸치고 별령 나자빠졌다.

한명회는 끝내 몸살이 들어 자리에 드러눕고말았다.

되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인것이다. 남의 목숨을 파리잡듯 하면서 이루어진 것에서 더욱 마음을 괴롭히는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끝)